



3면

이재명, 민주당대표 연임 도전 공식화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7월 11일 목요일 (음 6월 6일) 제3543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유비무환의 자세로 재난 피해 최소화”

김지사, 호우 피해 예방  
장마 대처 상황 점검 나서  
완주 운주 장산천 제방  
군산 경포천 배수펌프장 등  
직접 찾아 피해상황 확인



10일 오후, 호우 피해를 입은 완주군 운주면 장산천 제방을 찾은 김관영 도지사가 유희태 완주군수 등과 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6월부터 장마철 경우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장마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갖고, 이후 배수펌프장 등 재해 예방시설의 가동 여부를 직접 점검했다.

김 지사는 10일 오전 7시 자연재난종합상황실에서 도 관련부서와 시군 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장마 대처 긴급 점검 영상회의를 직접 주재해 지속되는 호우에 대한 피해 상황과 각 대처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피해 예방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통한 2차 피해 방지 등 재난 대응 원칙을 강조하며 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완주군 운주면 소재 장산천 제방을 찾아 일부 유실현장을 살펴보고 “신속한 응급복구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며 “지속적인 장맛비로 인한 제방 추가 유실과 논·밭경작지 침수 방지 등을 위해 관계기관은 모두 삼시 모니터링 등 긴밀히 협업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어 호우 대비 방재시설인 군산시 경포천 배수펌프장을 방문

해, 배수 펌프, 배수갑문 및 제진기 등 시설물 상태뿐만 아니라 CCTV, 전기 설비 및 매뉴얼 비치 등 전반적인 가동 준비상황을 꼼꼼히 확인했음뿐 아니라 연일 계속되는 재난 비상근무로 지쳐있는 군산시 재난담당 공무원 등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군산시 경안동에 위치한 경포천 배수펌프장은 대형펌프 10대와 25만㎡의 유수지로 조성해 지난 2001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 집중호우시 만조가 겹칠 경우 자연배수가 어려운 경포천의 수문을 닫고 배수펌프장을 가동해 최대 분량 4,200㎡의 물을 바다로 강

제 배수를 실시, 경안동 등 48㎢ 군산 지역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

이미 지난 5월부터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해 배수펌프 가동을 위한 고압 전선 전원 완료 및 시험 가동을 실시한 바 있으며, 담당직원 24시간 상주 등 우기철 대비 펌프장 가동 준비를 마친 상태다.

김 지사는 “자연재난은 예고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철저한 대비와 점검만이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며 “7월 중순까지 장마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선제적이고 과할 정도로 사전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인명보호와 재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선행 강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 우려지역, 급경사지는 물론 낙석 등 토사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은 사전 점검을 더욱 강화하라”며, “응급 복구를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도내 전지관련 공장 25곳 중 대부분 “대규모 화재 위험성 적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경기도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총 6개 기관 139명이 참여한 합동점검반이 지난날 28일부터 이날 8일까지 도내 전지관련 25개소 공장의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전지관련 부품, 소재 생산 공장으로 대규모 화재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주요점검 내용으로 소방분야는 △소방계획서 작성 등 안전관리 실태 △전지생산(공정) 관련 위험물 저장·취급 준수 및 무허가 위험물 여부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적정 실시 여부 및 불량사항 조치 여부이고, 유관기관 분야

### 합동점검반 긴급 점검 결과… 전복소방본부, 화재 안전관리 강화

로는 △전기·가스 등 관련 시설 안전관리 △무허가 건축물 설치 여부,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시설 취급 적정여부 등이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무허가 위험물저장 2건, 소량위험물 취급기준 위반(표지판 및 계시판 미설치) 1건의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위반사항이 있었으며, 또한 피난구 유도등 불량 등 경미한 9건의 소방시설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지자체 등 합동점검반에서는

비상연락망 정비 등 총 12건의 개선권고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번 점검 결과 전북자치도의 경우 경기 화성 아리셀과 같은 리튬 전지 완제품 생산, 제조 공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소방본부는 유사한 화재 예방하기 위해 도내 전지공장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화재 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3개소 등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연 1회 이상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소방기

동순환 실시 등 특별 관리한다.

건축 중인 전지관련 공장은 원스톱 119지단원을 통해 설계부터 완공까지 화재 안전성 강화도 추진한다.

소방, 지자체, 공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안전협의체도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소방관서장이 직접 공장에 방문하여 취약요소를 개선하는 등 현장행정을 정례화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6개 국어로 자체 제작한 ‘외국인 화재 대피 요령 팸플릿’을 배포하고 교육한다.

더불어, 급속 화재 대응을 위해 7월 중에 모든 소방서마다 광장질식 20포(2,000리터) 이상씩 비치토록 하고, 전지 관련 모든 공장을 대상으로 소방대원 현지직접 훈련과 관계자 초기 대응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 전주페이퍼, 청년 근로자 사망 계기

## “안전보건경영 강력 시행 더 나은 근무환경 제공”

유해가스 재조사·가스 감지센서 설치 등 추진  
안전보건 관련 교육훈련 강화에도 역점 두기로  
“현장 직원 의견 수렴, 지속 수정·보완할 것”

전주페이퍼가 강화된 안전보건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근로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를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주페이퍼는 지난 조사 중 예상치 못했던 장소에서 황화수소 일부가 검출된 것을 교훈삼아, 최우선적으로 유해가스 재조사에 즉시 나서 방침이다. 회사는 사내 안전보건팀과 연구소 및 관련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이번 해당 구간뿐만 아니라 공장 전체 설비에 대해 황화수소를 포함한 모든 유해가스를 대상으로 검출 여부를 재점검할 계획이다.

전주페이퍼는 지난 7월 7일 황화수소 재조사 이후 현장에 곧바로 배기 팬을 설치하고, 근무자 접근을 최소화하면서 접근 전 가스 측정 등 의무화하는 등 회사가 즉각 시행할 안전보건 조치들을 마련했다.

우선, 유해가스가 조금이라도 나올만한 곳에는 방독면을 필수적으로 현장에 배치하거나, 가스측정기나 가스감지 센서를 갖추기로 했다. 또한, 원천적으로 설비에 대한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배관 내 정체물을 제거하는 드레인 라인을 설치하거나, 해당 탱크에 배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운전 매뉴얼을 개정해 하절기 배관 청소 시 배수 대신 재용수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설비 중지 후 재가동 시에는 현장 순찰을 최대한 줄이고 계기 등을 활용해 모니터링으로만 공정상태를 확인 가능하도록 해, 현장 근무자의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보건 관련 교육훈련 강화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해가스 예방 및 대응은

물론 심폐소생술을 전직원 대상으로 확대하고, 신입사원 필수 교육으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모든 공정에 심장박동 제세동기를 추가 확보하고, 해당 설비 주변의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춰 CCTV, 환풍기나 반사경 설치, 불용설비 철거 및 조명 보완 등도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전주페이퍼 관계자는 “그동안 ‘3초를 운동’ 등 다양한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통해 그 어느 회사보다도 ‘안전 최우선’ 경영을 해오고 있다”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전보건경영을 더욱 더 강력하게 시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페이퍼는 지난 7월 실시한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현장 재조사 과정에서 최대측정 한도가 100ppm인 측정기에서 황화수소 수치가 한때 Max가 나온 경위에 대해 현재 확인 중이다.

다만, 확인 절차가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황화수소 검출이 안 되도록 모든 설비를 재점검 보완하는 등 우선 강화된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전주페이퍼는 “경위에 관한 결과를 기다리는 것보다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는 게 최우선 상황으로 판단했다.”며 “현재 회사는 1차 측정에서 황화수소 Max로 표시된 후 2차에서 4ppm이 나온 것에 대해 혼선을 드러 다시 한번 최종하고 현재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주페이퍼는 이번 안전보건 대책은 앞으로도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매일 캠페인